마포종친회 제24차 정기총회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난 12월 28일 12시,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우가촌회관에서 남여족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윤 총무의 사회로 시조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 열선조님에 대한 묵념이 있었으며 이어 총무의 내빈으로 대종원 권오복 편집위원, 권범준 홍보부장, 권영갑 수원종친회장, 권영석 서울 산악회장 등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권승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모두는 권문의 한 뿌리에서 자라는 가지요, 나무잎 자신과 후손을 위해 문사에 참여하는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명예와 자손들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권문 가족들은 앞으로 더욱더 오문 문사직작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문·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복 편집위원은 인사에서 새해 청양(靑羊)의 해에는 모든일에 한 번더 감사하고, 웃어주고, 용서하며, 배려해주는 해가 되기 바라며, 일년 365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갑 수원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마포종친회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모범종친회로써 오늘 수원종친회장·전국지역종친협의회 간사로써 문사 공부를 하고자 참석했으며, 서로간의 공존공생,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으며, 권영석 서울산악회장은 마포종친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오며, 우리모두는 안동권씨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권문의 후손으로써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족친 여러분은 마포종친회 발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2014년 12월 28일 12시 권승구 마포종친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권경탁 감사의 감사보고후 기타토의로 권승구회장 제1호안(임원선출의 건)은 지난 12월9일 임원회의에서 임원 전원을 유임키로해서 이를 총회에서 인준해 줄것을 상정, 권충옥 고문의 전원유임 찬성으로 가결 되었으며 2호안(마포종친회 명칭변경의 건)은 충옥 고문이 이미 마포종친회는 널리 알려서 있기에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반대해 보류하였으며, 3호안(월례회(매월)일자 변경의 건)은 연노한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겨울에는 토요일 낮시간에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충옥고문이 30여년간 지켜온 목요일(매월)을 갑자기 변경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이를 그대로 하자고 제안해 그대로 목요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총무는 3년 6개월재직하면서 문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키로 했다.

회의를 마치고 오찬에 들어가 권범준 대종원 홍보부장의 힘찬 건배제의로 내일의 마포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산회했다.

마포종친회 연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권병길, 충옥, 영관, 오헌, 오형, 수늠, 오성, 현규, 문야 △명예회장 : 권명오△회장 : 권승구 △수석부회장 : 권인근△부회장 : 권경순, 태복, 영철, 덕순, 혁구 일부△운영위원 : 권중현, 상숙, 명식, 오준, 정찬, 종우 순익, 승호, 난희△감사 : 권경탁, 순용△총무 : 권오윤

〈글 : 권오복, 사진: 권범준 홍보부장〉

서울산악회 산행 및 송년회

안동권씨서울산악회(회장 권영석)는 지난 12월 21일 (일) 오전10시 7호선 수락산 1번 출구 앞 40여명이 최초 집결, 연말 송년 산행을 수락산둘레길 일대를 산행 후, 오후 1시경 수락산역 인근 조마루감자탕 식당에서 2014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 행사는 권병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님 망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 내빈소개로 권혁조 고문,(前 4대회장)권혁찬 원로고문, 대종원에서 취재차 권범준 홍보부장 등을 소개 한후, 인사로 진행 되었다.

이날 영석 회장은 송년 인사로 "오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산행을 마치고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권씨서울산악회는 족친님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종친회 산악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보람있고 잘한 일 아닙니까. 아울러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을 기해서는 우리 산악회가 더욱 승화발전하는 원년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어 혁조 고문, 혁찬 고문, 대종원 범준 부장 등이 격려 인사 및 축배를 제의하였다.

△ 수락산 산행후 권영석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이어 2부 행사로 송년 만찬으로 한해를 보내는 자축이라 회원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회를 마치고, 한해 보내는 아쉬움이 남아 주최 측 안내로 인근 노래방으로 회원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여 송년 축제 파티 즐기면서 뜻 깊은 갑오년을 뒤로하고 산회하였다.

〈권범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2016년 국비확보 전략회의 개최

이 기사는 안동향우신문(2014, 12,31 종합)인용 전재한다.

대구시장 권영진(52, 안동 34世 동정공파)은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3조 5천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보다 3개월 빠르게 국비확보 체제에 들어간다.

전략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정태옥 행정부시장, 김연창 경제부시장, 대구시 실·국장과 국비 관련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최대한 중앙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국비확보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국비추진 전략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역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간담회도 1월 중 개최하고 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회의도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직접 챙길 예정이며, 실·국 간부공무원이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 중기사업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발맞춰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안전 등 테마사업별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하는 등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빠른 맞춤형 전략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구시는 사업성 검토와 추진 적정성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신규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채택된 사업은 2016년도 정부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현안 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공으로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부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조대구를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신규예산 발굴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 확보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하면서, "국비예산도 이제는 질이 중요하다며, 대구시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춘 前 대구시 자치 행정국장

40여년간 대구시정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통 행정 공직자로서 대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한 권오춘(56) 대구시자치행정국장은 93년 한국방송통신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4년 안동시 송하동에서 공직에 입문해 대구 북구청, 대구광역시자치협력과장, 총무인력과장, 복지정책관, 자치행정연수원(고위정책과정)과 교통국장 등 재직시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포용력있는 성품으로 지역여론과 공직내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또한 대구시 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구시정의 난제로 인식되어온 버스, 택시등 관련 기관·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거버넌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구공항에 저비용 항공사 취향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되어 대구지역 교통정책 입안에 획기적으로 공헌하기도 했다. 公과 私를 분명히 가리고 청렴인으로 일관해온 씨는 엄친 권영필씨와 자당 이축향(고성이씨) 여사로 태어나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훈했으며 "견선낭천(見善郞遷)하고 유과낭성(有過郞省)하라"는 가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며 직원간 신의있고 성실한 모범국장으로 정평이 있었다.

〈권오복 편집위원〉

槐雲칼럼

영화 '국제시장' 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화상이다

■ 槐雲 權海兆(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최근 영화'국제시장'에 대해 네티즌들의 논란이 시끄럽다. 지난 12월 17일 개봉하여 한 달 만에 관객 1000만 명에 예매 율 1위로 흥행을 보이고 있는 '국제시장'을 며칠 전에 가족들과 관람을 하였다.

이 영화는 몇 년 전 관객 1,145만을 동원했던 영화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연기파 인기배우 황정민, 국제스타 김윤진, 천만배우 오달 수 등을 출연시켜 6.25전쟁이후 오늘까지 대한민국 건국 2세대들의 삶의 단면을 묘사한 감명 있는 휴먼 드라마였다.

영화의 줄거리는 6.25전쟁당시 중공군의 침입으로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에서 피난에 오른 윤덕수 가족들 6명의(부모, 4남매)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피난 배를 타면서 덕수(황정민 분)가 셋째동생 막순이(당시5살)의 손을 놓쳐 아버지가 찾아가는 도중 배가 떠나면서 생이별이 되었다. 부산에 도착하여 국제시장 고모의 '꽃분이네'가게를 찾아 더부살이로 피난생활이 시작된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였고, 덕수는 장남의 책임감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죽마고우 달구(오달수 분)와 구두닦이 등 온갖 일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독일광부로 가서 막장에서 죽을 고비도 맞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 오영자(김윤진 분)를 만나 임신까지 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 덕수는 귀국 후 자기 소원이었던 선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대학에 합격한다. 그러나 학업도 포기하고 동생들 학비와 결혼비용을 벌기위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에 진출한 민간기업체에 취직을 한다. 베트콩의 기습으로 총상을 입고 목발을 집고 절뚝거리며 귀국하여 '꽃분이네'를 운영하게 된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되자 방송에 출연하여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는 찾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입양 간 동생 막순이를 만나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 덕수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보면서 자식세대의 행복을 위해 본인을 희생한 삶을 회생하면서 영화가 끝난다.

영화를 본 네티즌 의견들도 일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아버지 세대의 고생 후일담을 지겨워하는 젊은 세대들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 우리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다. 대단히 존경스럽다. 추운 날씨인데도 돈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 전쟁의 아픔,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화장면에서 자식에 대한 애틋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나 아버지 사진 앞에서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힘든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란 독백 장면, 막순이와 재회장면 등은 관중들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가슴을 찡하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유머를 섞어 표현된 훌륭한 역사물이다. 윤제균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버지 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헌사(獻詞)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며, 소통과 화합을 말하려 했는데 개봉 후에 갈등으로 당황스럽다고.' 했다. 영화'국제시장'은 건국 2세대들의 평범한 한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대한민국 현대화의 자화상이며 국민 각 계층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80불도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선진국 대열에 서 있게 된 원동력이 주인공 덕수 같은 건국 2세대들이 서독 광부, 월남전 파병, 중동 노동자로 파견되어 피와 땀을 흘리면서 받은 달러 덕분이었다. 국제시장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닌 바로 70세 전후 건국 2세대들이 굳세게 살아온 이야기 들이며, 우리 청소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다. 특히 윗세대 경제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추억이며 젊은 경제인들에는 배워야할 역사물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야기된 6.25전쟁에서 유엔군의 덕분으로 조국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통일을 못 이룬 통한(痛恨)을 일깨워주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아비규환의 철수장면은 전쟁의 참상을 일깨워주었다. 흥남철수 작전은 중공군에 포위된 미해병 1사단을 구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유엔군 10만5천여 명, 차량 장비 35만여 톤과 피난민 9만1천여 명을 철수시켰다. 당시 흥남철수작전 계획을 세우고 '무기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 살릴 수 없다.'고 피난민 구조를 건의한 에드워드 포니대령과 통역장교 현봉학 박사와 김백일 한국군 1군단장, 이를 승인한 미 10군단장 알몬드 소장, 그리고 화물을 버리고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태운 기적의 배 '메러디스 빅토리아 호'와 선장 마리너스라우(1914-2001)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이 영화를 제작한 기획사와 감독, 출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立春에 대한 帖書와 柱聯이란

우리나라는 北位30°~45°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이다.

한국-중국-지중해-미국 등으로 접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위도 중간에 위치하여 4季節이 있는 축복 받은 나라다. 春.夏.秋.冬 4節氣가 뚜렷한 錦繡江山이다. 그래서 易學의 한 卦에 속하는 二十四爻(효)에 책력되어

○ 24方位-24時間-24節氣 가 있는데 그중 24節氣를 말한다.

1年을 24로 나눈 節氣에 太陰曆에서 닷세동안이 一候(후)가 되고 三候(후)가 모여서 一氣 라고 하는데 陽. 陰曆으로 初旬,下旬이라고 하며 한달을 3으로 나누어 初旬,中旬,下旬의 節氣라고 한다. 24節氣 또는 季節이라고도 하며 1年중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는 節氣가 立春 이다.

4節氣를 열거해보면

-봄(春):立春.雨水.驚蟄(경칩).春分.淸明.穀雨(곡우).6節氣가

-여름(夏):立夏.小滿.芒種(망종).夏至.小暑.大暑

-가을(秋):立秋.處暑.白露.秋分.寒露.霜降

-겨울(冬):立冬.小雪.大雪.冬至.小寒.大寒

24節氣에 立冬부터 大寒까지 가혹독한 겨울인데 3寒4溫이 있으며

小寒.大寒이 지나면 한강물이 풀린다는 기다림이 겨울나기가 얼마나 고통과

애환을 겪으며 동지섣달 긴긴밤에 초목 건피 먹던 시절 가난과 배고픈 시절을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추억일 것이며 조상들의 지혜가 겨울을 달래고 봄을 기다리는 소박한 삶이였죠.

봄을 찬양하는 句節을 立春 帖書(글귀를 쓴 글자)와 柱聯(기둥에 붙이는 詩) 이라고 하였다. 집의 대문이나 문방, 기둥에 잘보이는 곳에 부쳐놓고 萬福을 祈願하는 句節로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돋보인다.

〈부정공파 36世 權相欽〉

경제단신

△포스코(회장 권오준)는 가을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짝수 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포스코 키즈콘서트'를 2월 14일부터 개최한다. 이 '키즈콘서트'는 '구름 빵 동요콘서트'를 시작으로 뮤지컬, 발레 등 어린이 대상 공연을 6차례가질 예정이다.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일반인 200석과 임직원 100석으로 운영된다. 초청권은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된다. 첫 공연 관람 신청기간은 22~29일이다.

(동아일보, 2015, 1월 21일 (수 B6면)

동정

▲권선주 IBK 기업은행 은행장은 지난 12월 30일 오전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 4억원을 서울시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권선주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절단식을 하고 중소기업근로자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1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책임경영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포스코는 권오준 회장이 지난 8일과 12일에 걸쳐 자사주 37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으며 또한 지난 15일 포스텍신임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권이혁 서울대의학과 명예교수·본원 명예총재는 지난 1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내년 한해를 대구 재창조 원년으로 삼겠다"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젊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용원키움증권사장이 지난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영업부에서 '키워드림 배당형펀드랩' 가입행사에 참여했으며 이 상품은 브로커리지 시장에서 9년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상품이다.

▲권기봉(54, 안동, 36世 복야공파)한국농어촌공사 사무처장이 지난 1월 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교수가 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花山萬世榮

안동권문은
만세토록
번영하리